

리색의 철학사상과 계급적본질

로 학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사회적사변에 무관심할수 없을뿐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거기에 참가하여 자기의 생활목적에 맞게 풀어나가려고 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5권 47페이지)

모든 사상과 이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조건에 의하여 제약되며 그 시대의 이러저러한 사회적집단, 계급과 계층의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다.

사람들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에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자연과 사회,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제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유교성리학은 고려말 봉건통치의 부패성과 대내외적위기가 강화되고 사상분야에서 지배적인 통치사상이었던 불교가 쇠퇴몰락함에 따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가 절박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전파되였다.

고려말기 우리 나라 철학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유교성리학을 전파하고 체제화한 사람들은 지배계급의 요구를 대변한 사상가들이였다.

14세기 말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봉건왕조가 성립되던 왕조교체의 시기였다.

고려말기 적극적인 개혁파인물들은 모두 중소토지소유자들이였으며 유교성리학자들이였다. 이 시기 유교성리학자들의 개혁을 위한 투쟁은 먼저 사상리론분야에서 진행되였는바 그들은 고려전기통치사상으로 복무하여온 불교를 반대하였다. 당시 반불교투쟁은 불교사원들과 귀족승려들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으로 표현되였을뿐아니라 사상리론적으로는 불교교리와 철학리론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들은 유교성리학을 철학리론적으로 세련시켜 통치사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은 리색, 정몽주, 리승인, 정도전, 권근 등이였다.

리색(1328년—1396년, 호는 목은)은 고려말, 조선봉건왕조초 정치적대변동의 시기에 신흥사조의 하나로 발전하고있던 유교성리학의 대표자로서 고려왕조에서 한때 재상도 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유교성리학연구에 돌렸다.

리색은 유학자의 가정에서 나서자라면서 아버지(리곡)와 스승인 리제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4살때에 리색은 성균관시험에 합격하였고 그후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으로서 유명하였다. 귀국후 그는 고려왕조의 정계 및 학계의 주요인물로 활동하였다. 그의 책으로는 《목은집》(전55권)이 전해지고있다.

리색은 고려말, 조선봉건왕조초기 유교성리학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고려사》렬전에 의하면 그는 개경부사로서 성균관대사성을 겸하면서 성균관의 규모를 확장하였고 학생수를 늘이였으며 이름있는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의중, 리승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교수로 등용하였다. 그리하여 몇십명밖에 안되던 학생수가 늘어나고 리색자신이 매일 명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수업이 끝나면 피곤을 잊고 서로 논쟁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들게 하고 정주성리학이 흥하게 하였다.

리색은 《공자는 요, 순을 선조로 서술하고 문무(문, 무왕)를 법으로 하여 시서(시경, 서경)를 정리하고 례악을 정함으로써 정치를 밝히고 성정을 바르게 하여 풍속을 일치하게 하고 태평성세의 근본을 세웠으니 백성이 있는 이래로 공자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것이 진나라의 분서를 당하여 쇠퇴했는데 당나라때 한유(당나라시기 철학자)가 공자를 높이고 불도를 버렸다. 송나라시기에 한유를 스승으로 삼고 고문을 배운 사람은 구양공을 비롯해서 몇사람뿐이었다. 특히 공맹(공자, 맹자)학을 명백히 하고 불도를 배척하여 온 세상을 교화한데 이르러서는 주정(주돈이, 이정)의 공로가 크다.》(《목은집》 권9)고 함으로써 유교성리학을 적극 내세웠다.

리색은 우주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사이를 동요하면서 불철저한 립장에 서있었다.

리색은 세계의 본질적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천지를 하나의 기로 보았다.

그는 《천지는 기이다. 사람과 만물은 이 기로부터 생긴다.》(《동문선》 권73 선정기)고 하였으며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의 기일뿐아니라 산천초목도 역시 하나의 기이다. 어찌 그사이에 경중을 말할수 있겠는가.》(우와 같은 책, 《국간기》), 《비록 도는 큰 허공과 같아서 본시 형체가 없으나 다만 기는 그것이 능히 사물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그 기가 큰것은 천지가 되고 그 기가 밝은것은 해와 달이 되고 그 기가 흩어져서는 바람, 비, 서리, 이슬로 된다. 그 기가 솟아서는 산악을 이루고 그 기가 흩어져서는 강하천이 된다.》(우와 같은 책, 《서경공월루기》)고 하였다.

이것은 리색이 자연세계의 사물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기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리색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우주간의 생명체들은 모두 《수기》(물기)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무릇 우주에 존재하는 형형색색의 사물들은 모두 물을 기초로 하고있다. 사람이라고 례외로 되겠는가. 저 산악과 같은 큰 사물이나 지어 높다란 하늘과 땅우의 짐승초목들도 다 물에 의하여 나서자란다. 만약 우주공간에 수기가 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것이 어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수 있겠는가.》(우와 같은 책, 《침류정기》)고 하였다.

리색은 세계의 본질적특징을 기에 의해서 설명한데 기초하여 천(하늘), 인(사람), 물(사물)의 일체를 주장하였다.

그는 《천지는 기이다. 천지가 갈라질 때 가볍고 밝은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었다. 사람과 만물은 이 기를 받아 생겨나고 무리 지어 나누어지며 부류에 따라 모이고 습한데로 흐르며 마른데로 나가는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어지러운것 같지만 그안에서는 실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다. 사람과 만물의 태여남은 가볍고 밝은 기를 받는데 그 온전함을 얻는자는 성인이 된다. 천지가 부여함은 고르롭지마는 사람이 가장 령특하다. 그러나 이 기의 부여받음이 물욕에 가리워진 후에 삼품설이 생긴것이다. 사물과 나는 둘이 아니다. 천지는 본래 일기(하나의 기)이며 산천초목도 본래는 일기이니 어찌 그사이에서 경중을 따질수 있겠는가. 천지만물은 다같이 일체

이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나 그속에는 천지만물이 갖추어져있다. 때문에 그 몸을 닦음에 그 뜻을 잡고 그 뜻을 잡음에 기를 길러서 그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나의 몸은 상하천지와 더불어 같이 흐르게 된다.》(《목은집》 권5 청향정기)고 하였다.

이와 같이 리색은 천지만물이 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기의 청탁경중에 의해 사람과 사물이 갈라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기의 온전함과 치우침에 의해 군자와 소인으로 갈라진다고 보았고 물아일체(사물과 나는 일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리색은 세계의 근원을 《태극》으로 보았다.

그는 자연계의 사물현상들의 발생발전과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태극》설에 의거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태극은 우주의 근본이다. 그것이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해지는데 따라서 만가지 사물이 변화하고 발생한다. 그 음양변화의 근원을 따질 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 무극지진에 귀결될뿐이다. 무극지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하기 어려운것이다. 시경에 쓰기를 하늘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극의 소재를 의미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주렴계도 <태극도>를 지으면서 <무극이태극>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태극이 곧 하나의 무극으로 되는 까닭을 말한것이라고 생각한다.》(《목은집》 권6 적암기)고 하였다.

여기서 리색이 사물변화의 근원으로 보고있는 태극이란 《무극지진》으로서 물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초물질적인 그 어떤 정신적인것을 가리키는것이다. 리색은 《목은집》(권3 진참기)에서 태극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태극은 무극을 의미하며 무극은 사물의 운동변화가 있기 전의 그 어떤 혼연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정신적인것을 가리키는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리》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의 시원에 대한 리색의 견해는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것이였다.

물론 리색은 성리학자이면서도 아직 《리》라는 개념을 철학적범주로 쓰지 않았고 《태극》과 《기》를 주되는 범주로 하여 세계를 설명하였다.

때문에 리색은 세계의 시원에 대하여 어떤 때는 태극이라 하였고 어떤 때는 기라고 하였으나 태극을 위주로 하여 기를 말하였다. 리색의 이와 같은 동요는 그의 계급적립장의 불철저성과 관련되어있다.

성리학자로서의 리색의 립장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견해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다고 본것이다. 리색은 천(하늘)의 명을 받은 인성이나 물성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리색은 이에 대하여 《창창한것은 하늘이다. 민이(백성의 힘)나 물칙(사물의 법칙)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 전체(민이, 물칙)는 곧 하늘이다. 그리하여 천이 곧 리이라고 한다. 무릇 성은 사람과 만물에 있는것이다. 그 소이연(까닭)을 따라 분별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성이고 만물에 있어서도 성이다. 동일한 성이며 이것은 동일한 하늘이다.》(《목은집》 권10)고 하였다.

리색에 의하면 이처럼 동일한 성은 제각기 다르게 변화하여 사람과 만물의 차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되므로 본성 즉 명덕(하늘로부터 받은 덕)을 회복해야 한다.

리색은 《<시>(5경 중의 하나)에 이르기를 상천이 무성무취하다고 하니 그것은 무극이 있는바가 아닌가. 때문에 주자(주돈이)가 태극도를 지으면서 역시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

였다. 태허, 태극을 대신하되 또한 하나의 무극이라 한것이다. 이 경지는 천에 있어서는 혼연일따름이니 바람이 불고 우뢰가 울기 전이고 사람에 있어서는 적연(고요함)일따름이나 일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기 전이다. 바람이 불고 우뢰가 울어서 혼연하던것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면 일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게 되니 어찌 고요하던것이겠는가. 마치 거울에 만물이 비치여 가리워지는것과 같다. 이로써 사람의 태여남이 본래 진(참된)하나 오직 대인만이 그것을 잃지 않기때문에 능히 대인이 된다.》(《목은집》 권3 양진재기)고 하였다. 그는 《가정에 효하고 나라에 충하는데 근본이 있으니 오직 중(가운데)일따름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것을 효라고 하고 이것을 임금섬기기에 옮긴것을 충이라고 한다. 그 이름은 다르지만 리는 하나이며 리의 하나같음이 곧 중이다. 무릇 사람이 태여났을 때 건순5상(음양5행)의 덕을 갖추는데 이것을 성이라 한다. 본래 어찌 충효가 있었겠는가.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서 허공을 경계하고 평형을 유지하는것이 성의 체이며 이것을 이름한것이 효이다. 중의 체가 세워지면 천지의 위지가 화하고 용(작용)이 실행하면 만물이 화육한다.》(《목은집》 권10 백증 설증, 리자원별)고 하였다.

리색은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그례를 수양하고 사물에 응함은 중화일뿐이다. 중화를 이루고저 하면 계신(경계하고 삼가함), 공구(두려워함)부터 착수해야 한다. 계신, 공구란 무엇인가. 존천리(천리를 보존함)이다. 신독(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육을 막게 된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육을 막으면 성인의 배움은 여기서 끝난다.》(우와 같은 책)고 결론지었다.

리색의 이러한 사상들은 철저히 유교성리학적립장에서 제기된것으로서 봉건국가의 통치에 복무하였다.

리색은 불교에 대한 견해와 사회정치적견해에서도 절충주의적립장에 서있었다.

고려말에 이르러 사회계급적모순은 첨예화되고 통치계급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계층이 심각한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부패하고 타락한 대토지소유자계층은 무너져가는 고려봉건통치를 유지해보려고 하였다. 한편 중소토지소유자계층은 온화한 개량파로서 대토지소유자들에 의한 무제한한 토지점령을 반대하고 약간의 개량을 주장한 사람들과 그와는 달리 급진적개혁을 주장한 사람들로 갈라졌다.

리색은 바로 온화한 개량파의 대표적인물로서 고려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과 죄악을 일정하게 비판하였으나 온화한 방법으로 개량할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면에서 우유부단한 립장을 취하였다. 리색의 이러한 절충주의적립장은 그의 불교에 대한 태도와 사회정치적견해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자연에 대한 리색의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불철저한 절충주의적립장은 당시 사회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던 불교에 대한 립장에도 반영되었는바 그는 불교배척에서도 우유부단하였고 심지어 유불간의 타협까지 설교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불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대하는 립장에 서서 《고려건국초기에는 불교절간과 민가가 구별없이 삼삼오오로 뒤섞여있었으며 그 이후 무리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기슭과 산비탈마다 절간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 결과 중들이 타락해졌을뿐아니라 또한 이 나라 백성들가운데 놀고먹는자가 많아져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아파하였다. 석가모니는 성인으로서 종교나쁜것을 분간하여보았을것이니 이미 죽은 령혼인들 중들의 이러한 타락을 알면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제가 바라는바는 엄격한 법령을

발표하여 이미 중이 된자에게는 도첩을 주고 도첩이 없는자는 곧 군대에 편입할것이며 새로 세워진 절간들은 일체 철거시키고 철거하지 않는자가 있으면 곧 그들의 두령을 처벌하여 양민이 모두 중이 되지 않도록 할것이다.》(《고려사》 권115 렬전28 리색)고 하였다.

그러나 리색은 불교와 불경 자체는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는 대성인이다.》, 《불은 가장 성스러우며 가장 공평하다.》, 《불교중에는 분명히 공덕을 널리 베풀라는 말이 있다.》(《고려사》 권3 렬전)고 하였으며 불교와 유교는 그 근원이 동일한것이므로 불가에서 견성이나 유가에서 양성이나 같은 목적을 가졌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하면서 유불간의 타협을 요구하였다. 그는 불교에 대하여 타협주의적태도를 표시하면서 《공자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하라고 하였다. 내가 원하건대 불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이와 같기를 요구한다.》(《고려사》 권30 렬전)고 하였으며 1377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장경을 편찬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타협주의적태도를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리색의 불교배척론은 매우 제한적이며 불철저한것이였다.

사회정치적견해에서도 리색은 절충적이었다. 그는 고려봉건사회의 부패타락을 일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파들의 립장을 반대하였다.

리색은 부패몰락하여가는 고려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반동적인 측면들을 일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4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말세의 폐단이 전혀 없을수 없는것이니 그것은 ...토지제도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까치집에 비둘기가 든 격으로 되어있다. 해당 관리들이 비록 공문서에 누가 손님이며 누가 주인인가를 규정지어놓고있으나 <갑>이 만약 세력이 있으면 <을>은 아무 권리도 말할수 없으며 더우기 울긋불긋한 공문서자체도 고기눈알과 진주가 뒤섞여있듯이 분간할수 없게 되어있다.》(《고려사》 권115 렬전 리색)고 하면서 당시 토지문제의 문란과 특히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략탈을 비난하였다.

리색은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점병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혹심한 피해를 입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백성들은 식량이 토지에서밖에 는 나올데가 없다. 그러나 그 몇마지기의 땅에는 온 한해를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기도 넉넉하지 못하는데 조세를 받는자들은 한사람이 아니라 3~4명 지어는 7~8명이나 되어 그것도 서로 권력과 세도가 비슷하여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소작료를 물다가 부족하면 또 남에게서 꾸어다가 대응하니 무엇으로 부모를 공양하며 무엇으로 처자를 양육하겠는가. 백성의 곤궁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고 하였다.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극도로 문란해진 토지제도와 대토지소유자들에 의한 토지점병을 반대하고 전제를 다시 정리할데 대한 리색의 주장은 일정하게 의의를 가지였지만 그것은 피착취인민대중을 기만하고 반동적인 봉건질서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당시 반동적인 봉건토지제도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은 가혹한 착취와 략탈에 시달리다 못해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리색은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눅잠히기 위하여 약간의 개량으로 피착취계급에게 양보를 표시함으로써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고려봉건통치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리색은 조준, 정도전 등의 급진적개혁파들에 의하여 전제개혁문제가 일단 제

기되자 옛법을 경솔하게 고칠수 없다고 하면서 개혁에 찬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문란해진 일부 제도들을 개량하는데 그치고 고려봉건통치제도를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립장에 서있었다.

리색은 조준, 정도전 등과는 달리 명문귀족의 출신으로서 전제개혁문제가 현실적문제로 제기되자 초기 온화한 개량적립장을 바꾸어 완고한 보수파로 전락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조준, 정도전과 함께 사전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명문귀족들은 모두 비난증상하였으나 조준은 더욱더 자기 주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그 가부를 토의하게 되었을 때 시중 리색은 오랜 법제를 경솔하게 고칠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듣지 않았으며 리립, 우현보, 변안렬 그리고 권근, 류백우 등은 리색의 주장에 추종하였다. 정도전, 윤소종은 조준의 주장에 가담하였고 정몽주는 이 중간에서 일정한 립장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던바 의논에 참가한 사람이 53명이었는데 개혁을 요구하는자가 10중 8~9명이었으며 요구하지 않는자는 모두다 명문가족의 자제들이었다.》

총체적으로 리색의 철학사상은 고려말의 중소지주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성리학자로서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약간의 합리주의적요소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으로 당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진보적인 유물론철학사상 발전에 저해를 준 관념론이었다. 그리하여 리색의 철학사상은 당시 우리 나라 봉건사회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데 적극 복무하였다.

이 모든것은 리색이 13~14세기 신흥사조의 하나로 발전하고있던 유교성리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라는것을 보여준다.

리색은 선행시기 우리 나라에 전파되고있던 유교성리학을 《태극》과 《기》라는 철학적범주로서 보다 깊이 연구하여 관념론적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색의 단계에서는 유교성리학의 기본범주인 《리》가 전면에서 나설수 없었고있었으며 《태극》으로서 《리》를 대신하고있었다.

리색의 철학사상은 그후 유교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리색에 의하여 홍두적의 란이래 폐쇄되었던 성균관이 복구되고 그는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되었으며 제자들을 교관으로 임명하여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몽주, 리승인, 박상충, 김구용, 리존오, 김제안, 박의중, 윤소종 등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다. 성리학적객관관념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이름있는 학자들인 정도전, 권근 등도 리색의 제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유교성리학이 14세기에 이르러 리색에 의하여 그 연구성과들이 총화되고더한층 발전하게 되었다.(《고려사》권115 렬전28)

이와 같이 리색은 초기 유교성리학을 전파함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유교성리학을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실마리어 성균관대사성, 《목은집》